

# The Ten Lists

<b>목록 1</b> (89 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Prof. G. Horner's Bible-Reading System
<b>목록 2</b> (187 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Prof. G. Horner's Bible-Reading System
<b>목록 3</b> (78 일)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Prof. G. Horner's Bible-Reading System
<b>목록 4</b> (65 일)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 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Prof. G. Horner's Bible-Reading System
<b>목록 5</b> (62 일)	욥기, 전도서, 아가	Prof. G. Horner's Bible-Reading System
<b>목록 6</b> (150 일)	시편	Prof. G. Horner's Bible-Reading System
<b>목록 7</b> (31 일)	잠언	Prof. G. Horner's Bible-Reading System
<b>목록 8</b> (249 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Prof. G. Horner's Bible-Reading System
<b>목록 9</b> (250 일)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훬,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Prof. G. Horner's Bible-Reading System
<b>목록 10</b> (28 일)	사도행전	Prof. G. Horner's Bible-Reading System

설명을 좀 드리자면..

- 기본적으로 하루에 성경을 10 장(chapter)씩 읽습니다. 하루에 한장도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책을 조금 느리게 읽는 편인데도 하루에 30-40 분 정도면 10 장을 다 읽습니다. 저와 아내가 해 본 결과,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은 다르겠지만 대개 1 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읽기를 반복할 수록 시간은 더 단축됩니다.
-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적당한 속도로 읽으시되 잘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있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읽거나 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이해가 안되더라도 다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성경의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수도 있으니, 성경 읽는 시간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시고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못내 찝찝하시다면 옆에 공책을 준비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그 부분만 따로 공부를 한다던지, 공부를 한 사람에게 물어본다던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The Ten Lists 의 숫자 10 과 하루 10 장의 공통점에서 감이 오신 분들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각 리스트에 있는 성경 각권을 한 장씩 매일 읽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처음으로 읽기를 시작하신다면, 마태복음 1 장, 창세기 1 장, 로마서 1 장, 데살로니가전서 1 장, 욥기 1 장, 시편 1 장, 잠언 1 장, 여호수아 1 장, 이사야 1 장, 사도행전 1 장을 차례로 읽습니다. 다음 날은 각 권의 다음 장을 읽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문서의 첫 장에 책갈피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셔도 좋고 작은 포스트잇같은 것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 이렇게 읽을 때의 장점은 어려운 부분을 계속해서 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끝까지 읽으려고 할 때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레위기의 제사 부분이나 예언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계속 읽기만 하려니까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으로 읽으면 어려운 부분과 조금 더 친숙한 부분을 함께 읽게 되어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 각각의 리스트를 다 읽는데 필요한 날 수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리스트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리스트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면 다시 그 리스트의 처음에 있는 책의 1 장을 읽는 식으로 반복을 하여 읽습니다.
- 이렇게 읽게 되면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사도행전은 거의 매달 한번씩 읽게 됩니다. 잠언은 실제 우리 삶과 관련 깊은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으면 좋고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서신서들의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으면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의 책들도 여러번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좋은 것은 하루 성경을 못 읽었다고 해도 다음날 2 배로 읽어야 한다거나 하는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따르면 일년 365 일 중에서 최소한 250 일만 읽으면 성경을 한번 이상 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없이 하루에 10 장씩만 꾸준히 읽는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됩니다.
- 각 리스트가 끝나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에 대한 부분과 신약의 히브리서를 같이 읽게 되면 그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설명을 하려다보니 오히려 더 복잡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절대 복잡하지 않고 많이 부담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제안하신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1달 정도만 훈련하면 그 뒤로는 습관화가 되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단지 거짓이 가득한 세상일 뿐만 아니라 진리로 가장한 거짓, 혹은 진리같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저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두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